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음 12월 25일) 제22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에 하늘길… 전북도민 염원 현실화

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

관련기사 2면 · 3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심사결과 국무회의 의결 김제공항 건설사업 무산 후 15년 만 재개 현안 '결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한 전북도 입장발표 간담회가 2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과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다.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 하늘 길이 열린다. 50여년 전북도민 염원과 열망이 드디어 현실화 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돼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면제는 국제공항 건설의 현실화 확정과 함께 행정절차(기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우리 도민의 50여년 염원으로 숙원사업이자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최대 현안사안이 해결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환영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전북의 공항건설 사업은 지난 1968년 전주 송천동 군비행장에 김포와 제주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년,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하고도 감사원 감사에서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면서 2004년 사업을 중단한 김제공항 건설사업 무산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현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전북의 공항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고,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선6기 송하진 전북도정 출범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해 냄으로써 어렵게 국제공항 건설 재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때를 맞춰 국토교통부에서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수요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도 2025년에 67만명, 2055년에 133만명에 이르고 여기에 새만금 개발효과를 반영할 경우에는 2025년 94만명, 2055년에는 21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열정과 노력이 현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과(2017. 5) 100대 국정과제(2017. 7) 반영 및 내부개발, 투자유치 가속화와 맞물려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면제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즉각 대응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전북도의 노력에 민-관-정의 도민 총의(열망)가 모아져 최종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건설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전북에 대한 관심을 굳게 믿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대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설날 장사 씨름대회 내달 1일 정읍에서

기해년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위더스제약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오는 2월 1~6일 정읍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는 남자부 4체급(태백·금강·한라·백두) 164명, 여자부 3체급(매화·국화·무궁화) 59명이 참가한다.

남녀 체급별 경기 외에 여자부 단체전도 새롭게 선보인다.

씨름판의 백미 백두급에서는 젊은피와 전통강호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젊은피 서남근(연수구청), 남영석(양평군청), 임진원(영월군청)과 전통강호 정경진(울산동구청), 김진(증평군청), 손명호(의성군청) 등이 백두급에서 경쟁한다.

지난해 4개 대회 우승자가 모두 다른 한라급에서는 2017년 설날·단오·추석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3관왕에 오른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이 명예회복을 노린다.

금강급에서는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하고, 임태혁이 개인 통산 13번째 금강장사 타이틀을 노린다.

태백급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태백장사에 오른 성현우(연수구청), 이완수(동작구청), 윤필재(의성군청), 김성용(제주특별자치도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여자부는 양윤서(매화급), 임수정(국화급)이 속한 콜핑의 상승세가 점쳐진다. 이연우(매화급), 김다혜(국화급), 최희화(무궁화급)가 속한 안산시청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모든 경기는 무료입장이며 주요 경기는 KBS 1TV와 KBS N 스포츠가 중계방송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체육저변 확대 '총력'

전북체육회, 비인기종목 활성화 종목체험 교실 운영
소년체전 개최 · 시군 체육특화 종목 육성 등 추진키로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올해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종목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체육 강도에서 체육 선진도로 거듭나고 전북 체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신규사업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와 종목체험 교실 운영, 시군 체육특화종목 육성,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등 크게 4개 사업이다.

먼저 오는 5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장 시설 보완과 운영요원 확보 등을 비롯해 전라북도 핵심과제인 토탈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와 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년체전의 경우 지난해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보다 경기종목과 선수 인원은 적다. 그러나 초·중 학생 선수들의 부모와 친인척 등이 대거 전북을 찾는만큼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육저변을 확대하기위해 시·군지역 체육특화종목 육성 사업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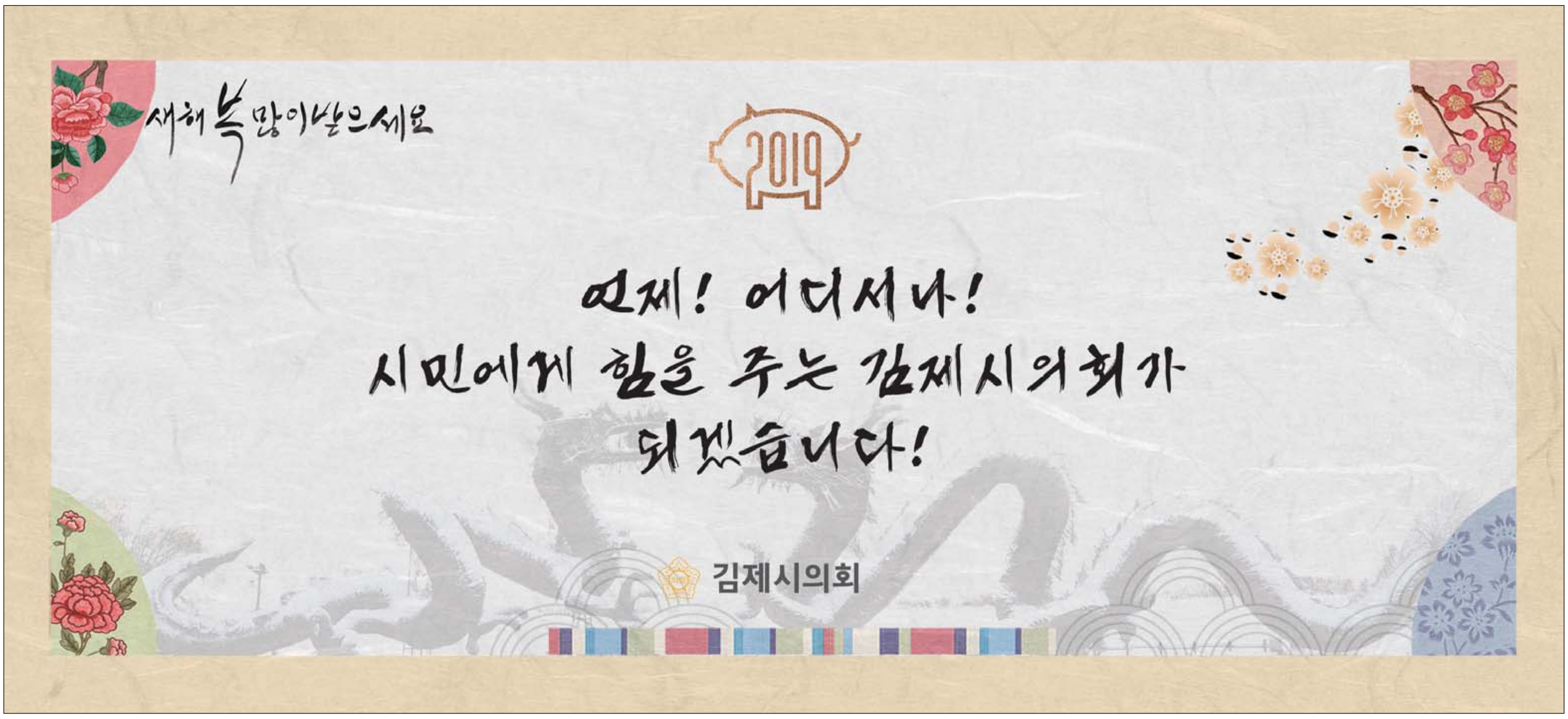
이 사업은 연중 도내 14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내 실업팀 선수들이 참여,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 지역별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일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키기위한 노력도 펼쳐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기종목을 소개하고 체험교실 등을 통해 흥미를 유도할 전망이다.

운영종목은 양궁과 카누, 승마, 컬링, 사격, 수상스키 등이다.

국제스포츠교류를 통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제12회 한·중 스포츠 문화교류도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17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 돼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교류는 2차례(초청·파견) 진행되고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이 펼쳐지게 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체육저변을 확대해 튼튼한 전북체육의 바탕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며 "체육을 통해 하나 됨을 구현하는 체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